인사말

수행과 포교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진력을 다하는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본사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역 사회에서 결실을 이루어 가는 모습은 시대와 사회가 바라는 책무를 실현하는 것이며, 종단의 위상을 어느 때보다 한층 높여가는 일로 여겨집니다.

어느 시기보다 본사 간의 교류와 논의를 자주 해오셨기에 교구의 안정을 바탕으로 종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불교의 미래를 보다 유익하게 점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년도 종단 결산을 공유하여 주지스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종단의 현안을 설명하고 스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년도 결산의 특징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도시 종교부지 확보 등을 위해 최대한 긴축하여 집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사회 활동, 승가교육 중흥, 포교사업 활성화 등, 종단 본연의 중점사업과 시기에 따른 현안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는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깊은 관심과 협력이 큰 힘이 되었고, 종단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점차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의미를 담아가며 초파일 연등회에 맞추어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를 봉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도와 불자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구본사의 솔선수범한 참여로 원만하게 봉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점 사업에 대한 교구본사의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위에서, 우리 중

단은 사부대중 대중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중공사를 통해 매년 100여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매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열의적 참여 또한 큰 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달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을 위해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종정예하를 비롯한 산중의 여러 대중사께서 성심으로 동참해 주셨고, 저 또한 소중한 선서화 모두를 기증하였습니다. 지금껏 교구본사의 많은 정성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선서화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아프리카에 한국불교의 지혜와 자비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종단의 내외부를 함께 점검하며 불교적 책무를 다하고자 진력하고 있으며, 안정적 진척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취를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종교시설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성화 할 수 있다’고 국가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국유림의 이용문제로 제약을 받던 많은 사찰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회의에 이어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합니다.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학원의 정체성이 옹골게 다시 서고 선조의 설립정신과 종도들의 염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구의 노력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며 한걸음씩 발전하는 모습이지만 모두가 무거운 짐입니다. 교구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종단과 함께하는 모습이 한결같고, 우리가 마주한 현안들을 함께하는 지혜와 원력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